외로움,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심미나 '외로움 총량의 법칙' 展… 탑골미술관 3월 30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모두 외로운 존재, 사실 알리고 모두에게 위로 위안 주고 싶어"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색채 복합적 미묘한 색과 은유적 표현

외로움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또한 각자가 겪어야 하는 외로움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그런 가정을 설정한 화가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서울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3월 2일(금)부터 30일(금)까지 심미나의 개인전 '외로움 총량의 법칙' 전을 연다.

이 전시는 201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탑골미술관 신인작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작가를 발굴하고 이들이 생애 첫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개인전을 열게 된 심미나 작가는 지난 2017년 신인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한 신인 작가 중에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투표와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저는 인간 모두가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고 외로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위안을 전하고 싶어서 외로움을 주제로 작업하게 됐습니다."

넓은 모래사장에 버려진 빨대 하나, 그 위에 고개 숙인 작고 투명한 코끼리. 심미나 작가는 외로움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

작가는 '만약 우리네 삶에서 겪을 외로움이라는 감정의 총량이 정해져있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작품을 시작했다. 작가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현재 겪고 있는 외로움을 보다 의연하게 마주할 수 있고, 스스로의 인생을 좀 더 객관화하여 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작가의 설정은 그렇게 성립되었고, 그림은 그 설정(작가의 가정)에서 출발한 그림이다.

모두가 외로운 존재이고 모두 같은 양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나만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 모두가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은 외로운 대상에게 작은 위로와 위안이다. 우울이라는 감정이 겉으로 들어나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울한 감정을 감추고 있는 상태이다. 작가는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색채를 통하여 도달하고자 한 숭고의 이미지를 넓은 색과 면 위에 나타내고 있다. 복합적이고 미묘한 색과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외로움을 그려냈다.

작가는 이번 작업을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선 자리에서 느껴지는 미지근한 체온과 같은 앵프라맹스(inframince)다"고 말한다.

심미나 작가는 외로운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 '앵프라맹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생존과 죽음 사이, 윤리와 본능의 사이, 권리와 의무 사이 등 인간은 모든 경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외적인 나와 내적인 나 사이에서 외로움과 우울이 발생하는 것이다.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 경계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앵프라맹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하지만 미묘한, 그 미묘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외로움 이후의 스펙트럼이 작가의 시선과 만나고 있다. 외로움이 분명 존재하듯이 '앵프라맹스' 역시 분명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외로움 속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증명해내기 어려운 앵프라맹스를 가질 수 있다. 심미나 작가의 그림은 그 미세하고 미묘한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속 나 되어보기'가 진행된다. 심미나 작가의 그림 위에 관람객들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으며 완성할 수 있다. 관람객들마다 각지 다르지만 끝이 정해진 우울의 총량이 덧대어 완성되어가는 매일매일의 모습도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다.

심미나 화가는 2012년 〈다그리고전-라메르갤러리〉, 2014년 〈화이트세일-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2017 〈깊고 짙은 마음-고양벨라시티〉전을 열었으며, 2017년 아트경기 선정 작가다.


〈무제〉, 130×162 유화, 2018


〈무제〉, 130×162 유화, 2018

단순 풍경 아닌 '생태'로서의 지리산

이호신 화백 '지리산 생활산수' 展
3월 15일~5월 16일 경남도립미술관


하동 먹점마을의 봄, 2016 46×60cm 한지에 수묵.

단순 풍경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하나의 생태계로 바라본 지리산 그림을 전시한다.

경남도립미술관은 3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지리산 생활산수-이호신'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호신 화백이 지난 10여 년 간 그린 지리산 진경과 지리산 둘레길 산수화로 구성된다. 더불어 지리산 답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화첩도 만나볼 수 있다.

이호신 화백의 지리산 산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전통 산수화와 조금 다른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화백의 지리산은 역사와 시대정신, 자연의 경외와 다양한 생태, 삶의 둥지와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림이다. 전시 제목이 '지리산 생활산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침 올 해는 지리산 둘레길이 열린지 10주년이다. 지리산 둘레길은 2008년 '생명평화'와 '동서화합'이라는 나눔과 화해의 정신을 기반으로 지리산 주변 3개 도, 5개 시군, 120여 마을을 연결해 조성된 순례길이다. 이 화백은 지리산 둘레길을 운영하는 (사)숲길 이상윤 이사와 함께 2년 동안 지리산 둘레길 21구간을 직접 걸었다. 그 기간 동안 이 화백은 그림을 그렸고, 이 이사는 글을 썼다. 그 결과물이 얼마 전 출간된 〈지리산둘레길 그림편지〉이다. 이번 전시에서 책 속의 그림을 원작으로 만날 수 있다.

둘레길에는 산과 함께 마을이 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둘레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림 속 풍경은 보는 순간 보는 이를 풍경 속으로 불러들인다. 그림 속의 자연이 품은 집과 사람 때문이다. 그림 속 마을과 사람은 자연 풍경에 비해 약간 도드라지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보는 이는 그림을 통해 많은 풍경과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

소박한 듯 담백한 둘레길 외에도 백두대간의 대표 산으로서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지리산도 볼 수 있다. 대형 작품 중심으로 구성된 지리산 진경 역시 자연으로서의 지리산 역사와 문화유산이 가득한 장소로서의 지리산을 담고 있다. 특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감법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담으려고 한 이 작가의 노력을 보여준다.

박재완 기자

국박, 청소년 대상 전시 감상 교육 운영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을 위한 전시 감상 교육 프로그램인 '교과서는 살아있다'와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를 운영한다.

'교과서는 살아있다'는 청소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을 주제별로 묶어 스스로 관찰, 탐구, 상상하는 감상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연', '지배자', '그릇', '재료' 등의 주제 아래 모둠별로 협동하면서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실 방문 전 · 후에 관련 복제품을 직접 만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전시품을 상상,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는 청소년들이 모둠별로 아시아 관련 전시품을 스스로 탐색하면서 타문화를 이해해 보는 문화다양성 전시 감상 교육이다. 인도실, 중앙아시아실, 중국실, 일본실에서 '교류'의 흔적을 찾는 주제 아래 그리기, 글쓰기, 움직이기 등의 자유로운 신체 활동과 관련 사진, 영상 등의 보조 자료를 통해 전시품을 다각도로 추리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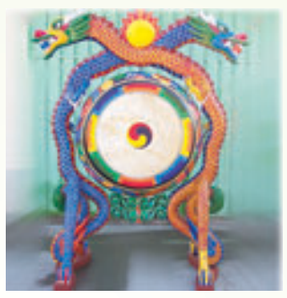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위 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급 단체(담당교사)는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교육 · 행사→교육신청→청소년→ '교과서는 살아있다' 또는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에서 3월 7일(수) 오전 10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학교별 담당교사가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완료해야 최종 참가학교로 확정된다. (접수는 선착순, 참가여부는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박재완 기자


'박물관에서 만나는 아시아'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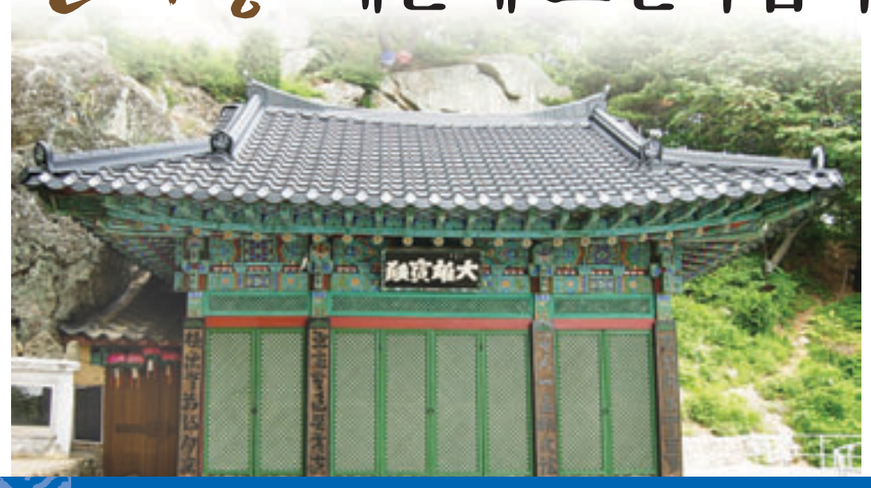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